

1. 다음 중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을 고르면?

가. 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나. 민들레꽃이 가장 아름답다.
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마. 우리 집은 기와집이다.

- ① (가, 나)와 (다, 라, 마)
- ② (나, 라)와 (가, 다, 마)
- ③ (다, 마)와 (가, 나, 라)
- ④ (라, 마)와 (가, 나, 다)
- ⑤ (마, 가)와 (나, 다, 라)

2. 다음 문장의 서술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아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아영이 2014년도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

- ① 충분조건이다.
- ② 필요조건이다.
- ③ 필요충분조건이다.
- ④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충분조건이다.
- ⑤ 아무 조건도 아니다.

3. 다음 문장이 거짓일 경우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모든 운전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

- ① 운전면허증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사는 없다.
- ② 어떤 운전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
- ③ 모든 운전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④ 어떤 운전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⑤ 운전사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증을 소유할 수 있다.

4. 다음 중 논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이 강의실은 매우 춥다. 왜냐하면 이 강의실의 온풍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아영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그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 ③ 김연아 선수는 훌륭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 ④ 아영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다녔다. 그래서 아영은 자연스럽게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
- ⑤ 명희는 철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철학과에 진학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5. 아래의 논증과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가지지 않은 논증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가?

정상적인 인간이 우주로 간다면 체중이 줄어 들 것이다.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몸매는 날씬하게 보인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에 간 강호동씨는 우주에서 생활할 때 지구에 있을 때 보다 날씬하게 보였을 것이다.

- 가) 동성애적인 성향은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것이거나 문화적 요인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 동성애는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동성애가 유전에 의한 성향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 준다.
- 나)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앞에는 “여기서 갈릴레이가 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갈릴레이는 그곳에서 낙하 물체에 대한 실험을 했나 보다.
- 다) 모차르트가 [파가로의 결혼]을 작곡했다면 그는 [마술피리]도 작곡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마술피리]의 작곡가 이다. 따라서 [파가로의 결혼]도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이 틀림 없다.
- 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나의 당근을 먹는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한다. 종규의 부모님은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들은 매일 당근을 드신다고 한다.
- 마) 만약 포도주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면 그것은 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만약 포도주가 고기의 맛을 좋게 만든다면 그것도 건강에 이롭다. 만약 포도주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면 그것은 고기 맛을 좋게 만들 것이다.

- ① 가, 다
- ② 가, 라
- ③ 나, 라
- ④ 다, 마
- ⑤ 라, 마

6. 갑, 을, 병, 정 네 사람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 갑, 을, 병 그리고 정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뛰어난 예술가들이다.
 나) 그리고 순서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직업은 무용가, 화가, 가수 그리고 소설가이다.
 다) 갑과 병은 그 가수가 처음 공연을 하던 날 청중 속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다.
 라) 을과 소설가 두 사람은 화가가 그린 자신들의 실물 그대로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었다.
 마) 소설가가 쓴 정의 일대기는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는 현재 갑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바) 갑은 병을 실제 한번도 본 적이 없다.

- ① 갑의 직업은 소설가이다.
- ② 정의 직업은 화가이다.
- ③ 을의 직업은 무용가이다.
- ④ 병의 직업은 소설가가 아니다.
- ⑤ 병의 직업은 무용가이거나 가수이다.

7. 다음 두 추론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면?

가)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은 사물이 가진 3차원성을 회복하려 한다. 고흐가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가 아니라면 사물이 가진 3차원성을 회복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사물이 가진 3차원성을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 고흐는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가 아니다.
 나)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은 사물이 가진 3차원성을 회복하려 한다. 고흐가 사물이 가진 3차원성을 회복하려 했다면 그는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일 것이다. 그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3차원성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흐는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가 아니다.

- ① 가)와 나)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전제가 모두 참이고 결론이 참이라고 해도 추론 과정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타당한 형식의 논증이다. 모두 타당한 추론을 통하여 참인 전제로부터 참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가)와 나)의 논증과정은 두 가지 모두 타당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증명되지 않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나)는 타당하지만, 가)는 타당하지 않다. 나)는 타당한 형식의 논증으로서 참인 전제로부터 참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가)는 참인 전제와 참인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추론 과정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 ⑤ 가)는 타당하지만, 나)는 타당하지 않다. 가)는 타당한 형식의 논증으로서 참인 전제로부터 참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참인 전제와 참인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추론 과정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8. 다음 논증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 당신이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꺼려할 필요는 없다. ㉡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이것이 범죄 발생 건수 자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범죄 발생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이 전보다 범죄를 신고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니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다. ㉦ 오히려 당신은 이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협조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찰이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는 이 논증의 결론이며 ㉡㉢㉣㉤㉦는 각각 병렬적으로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② ㉢는 이 논증의 결론이며 ㉠㉥는 ㉢를 지지하는 근거들이다. 그리고 ㉡㉣㉤는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는 ㉤를 지지하는 근거이다.
- ③ 이 논증의 결론은 ㉠이며 ㉡㉢는 결론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전제들이다. 그리고 ㉡㉣㉤는 ㉥를 그리고 ㉥는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로부터 도출되는 이 논증의 결론이다. ㉡㉣㉤는 함께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는 ㉤를 지지하는 근거이다. ㉢도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은 논증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며 ㉥가 이 논증의 결론이다. 그리고 ㉡㉢가 결론 ㉥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는 각각 병렬적으로 ㉥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9. 다음의 보도에 대해 가장 적절한 평가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나운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웬지 그럴 줄 알았다.” 흔히 '육감'이라고들 하죠. 이 육감이 실제로 뇌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무게 기자입니다.

(기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인체의 다섯 가지 감각 외에 딱히 설명할 수 없었던 '육감'. 하지만 엄연히 인체의 한 기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젊은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결과 개인적인 실수나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기 직전 대뇌 전두엽 위쪽에 위치한 대뇌 피질이 활동하는 것이 감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뇌를 발달시킬수록 인간의 예지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2000년 0월 0일 XXX X시 뉴스)

- ① 실험 결과를 근거로 육감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연역추리이다.
- ②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는 전문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③ 육감은 나머지 오감과 달리 신체의 특정 기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④ 공중과 방송의 보도 자료는 공신력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⑤ '육감'이란 말을 은밀하게 재정의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예문에서 소크라테스는 '길을 알지는 못해도 제대로 인도한다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한 이유로서 소크라테스가 제시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고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행위가 옳게 그리고 훌륭하게 행하여지는 것은 지식의 인도를 받아서만 되는 것은 아니야. 훌륭한 사람들도 유익함에는 틀림없네. 만일에 그들이 우리들의 행위를 바르게만 인도해 준다면, 그들 역시 유익하네. 가령 어떤 사람이 라리사로 가는 길을 알아서, 그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면, 그는 의당 옳게 그리고 훌륭하게 인도해 갈 걸세. 그렇지만 가령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할지라도, 어느 것이 그 길인지에 대해서 옳게 알아맞힌다면(혹은 의견을 가진다면), 그 역시 옳게 인도해 갈 걸세.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관해서 바른 의견이나마 어쨌든 가지는 한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 조금도 못지않은 안내자일 걸세. 그렇다면 바른 의견도 바른 행위에 관한 한, 지혜에 비해 조금도 못지않네. 그러니까 바른 의견은 지식보다 조금도 못지않게 유용하네.”

- ① 인간 행위가 올바른 것이 되려면 지식의 인도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 ② 훌륭한 사람은 지식에 의거하여 우리 행위를 바르게 인도한다.
- ③ 라리사로 가본 적이 없다면 거기서 가는 길을 알 수 없다.
- ④ 라리사로 가는 길을 알면서 인도하는 사람은 바른 의견을 가지는 것이다.
- ⑤ 라리사로 가는 길을 알거나 그에 관하여 바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이롭게 안내 행위를 할 수 있다.

11. 다음 글의 논자는 유사한 두 가지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잘못 짝지어진 비교 대상을 고르면?

조선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학자인 송강 정철은 소장을 잘 썼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서로 앉아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쓰러져 죽었다. 같이 있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의심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철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였다. “대감 제가 어느 친구와 말다툼했는데, 그 친구는 이미 병들어 있어서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호소를 하였다. 정철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소장을 하나 지어줄 테니 원님에게 가져가게나.” 그래서 소장을 짓는데 처음에는 “독한 술이 곁에 있으나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고, 썩은 노끈이 손에 있으나 당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하고 지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읽어 보더니 깜짝 놀라서 “대감 어째서 저를 죽이고자 하십니까?”하고 호소하였다. 그랬더니 정철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지어주었다. “기름 없는 등잔은 바람이 없어도 절로 꺼지고, 동헌에 누런 밤은 서리가 안 내려도 가을 되면 그냥 떨어진다.” 그 사람은 기뻐서 들고 사또에게 갔다. 사또는 보더니 “죽을 사람이 되어서 죽었구먼.”하고 판결하였다.

- ① 독한 술 - 병든 사람
- ② 기름 없는 등잔 - 죽을 사람
- ③ 동헌에 누런 밤 - 죽을 사람
- ④ 썩은 노끈 당기기 - 병든 사람 상해 입히기
- ⑤ 기름 없는 등잔 꺼뜨리기 - 죽을 사람 상해 입히기

12. 다음 글을 가장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 것을 고르면?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소?” 젊은 사람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고 있으니까요.” “천만에. 남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요. 우선 나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요. 드물기는 하겠지만 나 말고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소.”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 인류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이 따지듯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 보시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 못난 사람들인가, 똑똑한 사람들인가?” “그야 뭐 못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결국 못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군요.”

- ① 젊은이가 못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② 젊은이가 못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③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젊은이가 더 잘못된 것이다.
- ④ 젊은이가 못난 사람들의 흉내를 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더 잘못된 것이다.
- ⑤ 둘 다 옳다. 다만 삶의 자세가 다를 뿐이다.

13. 다음 글에서는 해변에서 버린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감이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논증하고 있다. 이런 온당치 않아 보이는 결론을 가진 논증은 추론과정 어딘가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추론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단계의 주장을 고르면?

“우리 각자의 사리사욕에 따른다면 쓰레기를 힘들게 집으로 가져오기보다는 해변에 두고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해변에 쓰레기 더미가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중 누구도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가라’고 말하는 것이 사리사욕에 부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당신이 버리는 쓰레기는 당신이 해변을 향유하는 데 아무런 실질적인 차이도 낳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변화해서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만 당신은 이득을 본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 변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편이 더 낫다.”

- ① 우리 각자의 사리사욕에 따른다면 쓰레기를 힘들게 집으로 가져오기보다는 해변에 두고 올 것이다.
- ② 우리 각자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해변에 쓰레기 더미가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 ③ 당신이 버리는 쓰레기는 당신이 해변을 향유하는 데 아무런 실질적인 차이도 낳지 않는다.
- ④ 다른 이들이 변화해서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만 당신은 이득을 본다.
- ⑤ 다른 이들이 변하는 경우,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편이 더 낫다.

14. 낙태 반대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낙태 찬성론자가 세운 전략에 부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낙태 찬성론자> “양극단에 있는 두 대상이 작은 차이의 중간단계로 이어져 있다면, 그 두 대상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고 해봅시다. 검정색과 흰색이라는 양극단에 있는 두 색은 작은 차이의 중간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검정색은 빛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주장대로 작은 차이의 중간단계로 이어진 양극단에 있는 두 사물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면, 흰색도 빛을 흡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흰색이 빛을 흡수한다고 보십니까? 당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낙태 반대론자> “양극단에 있는 두 대상이 작은 차이의 중간단계로 이어져 있다면, 그 두 대상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수정란과 출생시점의 태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 양극단에 있는 두 존재는 작은 차이의 중간단계로 성장해 왔으며, 따라서 그들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생시점의 태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수정란 역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기>

- ㄱ. 낙태 반대론자의 주장을 참인 전제라고 가정하고, 적어도 하나는 참인 전제들을 추가시키고자 했다.
- ㄴ. 낙태 반대론자의 주장을 참인 전제라고 가정하고, 모두 참인 다른 전제들을 추가시키고자 했다.
- ㄷ. 전제들 중 하나를 부정하고 결론을 긍정하는 것이 모순인 논증을 제시하고자 했다.
- ㄹ. 전제 모두를 긍정하고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 모순인 논증을 제시하고자 했다.
- ㅁ. 참인 결론을 도출시키고자 했다.
- ㅂ. 거짓인 결론을 도출시키고자 했다.

- ① ㄱ, ㄷ, ㅁ
- ② ㄱ, ㄷ, ㅂ
- ③ ㄴ, ㄹ, ㅁ
- ④ ㄴ, ㄹ, ㅂ
- ⑤ ㄹ, ㅂ

15. 지문 A와 지문 B의 내용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문 A] 당신은 몇 해 전에도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야만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당신에게 문화적 상대주의도 모르는 무식쟁이, 또는 자문화 이기주의에 빠진 독선주의자라고 단정합니다. 주위에 혹시 문화인류학자가 있다면, 문화상대주의에 대해서 한번쯤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진짜 야만이라고 합니다.

[지문 B] 나와 동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이건 나만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에는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 ㄱ.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 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을 타 집단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
- ㄷ.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16. 한국대학교 학생들이 보은의 의무, 선행의 의무, 악행 금지의 의무, 자기 개선의 의무, 정의의 의무, 충실의 의무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토론을 벌인 결과 그들 중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의무는 없다는 결론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보기> 중 한국대학교 학생들의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 보은의 의무는 선행의 의무 바로 직전에 온다.
2. 악행금지의 의무는 셋째 자리에 온다.
3. 보은의 의무는 처음에 오거나 제일 나중에 온다.
4. 자기 개선의 의무가 충실의 의무 바로 다음에 온다.

<보기>

- ㄱ. 첫째 자리에 보은의 의무가 와야 한다.
- ㄴ. 여섯째 자리에 보은의 의무가 와야 한다.
- ㄷ. 둘째 자리에 선행의 의무가 올 수 없다.
- ㄹ. 넷째 자리에 선행의 의무가 올 수 없다.
- ㅁ. 첫째 자리에 자기 개선의 의무가 올 수 없다.
- ㅂ. 넷째 자리에 자기 개선의 의무가 올 수 없다.
- ㅅ. 넷째 자리에 충실의 의무가 와야 한다.
- ㅇ. 다섯째 자리에 충실의 의무가 와야 한다.

- ① ㄱ, ㄷ, ㅂ, ㅅ
- ② ㄱ, ㄷ, ㅂ, ㅇ
- ③ ㄱ, ㄷ, ㅁ, ㅂ
- ④ ㄴ, ㄷ, ㅁ, ㅅ
- ⑤ ㄴ, ㄷ, ㅁ, ㅂ

17. 나이가 들어 코끼리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진 어떤 아버지가 자신이 돌보던 코끼리들을 4명의 아들에게 돌보도록 하고 자신은 더 이상 코끼리를 돌보지 않으려 한다고 가정하자. 그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코끼리를 자식들에게 나눠 돌보게 할 경우 자신은 더 이상 코끼리를 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중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것은?

- 가) 첫째에게는 전체 코끼리의 반보다 한 마리 더 많은 수만큼 돌보게 한다.
- 나) 둘째에게는 나머지 코끼리의 반보다 한 마리 더 많은 수만큼 돌보게 한다.
- 다) 셋째에게는 나머지 코끼리의 반보다 한 마리 더 많은 수만큼 돌보게 한다.
- 라) 넷째에게는 나머지 코끼리의 반보다 한 마리 더 많은 수만큼 돌보게 한다.

- ① 전체 코끼리 수는 네 아들에게 분배된 코끼리 수 가운데 그 어떤 수의 배수도 아니다.
- ② 둘째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는 첫째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의 반에 해당한다.
- ③ 넷째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는 첫째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의 1/4에 해당한다.
- ④ 셋째와 넷째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의 합은 둘째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보다 그 수가 많다.
- ⑤ 첫째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는 동생 모두가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를 합한 것보다 한 마리가 더 많다

18. 다음 글의 결론적인 주장은 무엇인가?

집이 시골의 농가이고 아이가 열 형제 중에 하나였던 시절에는 가정이 그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이 도시의 작은 아파트이고 아이의 형제 혹은 자매가 기껏해야 하나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부모와 자식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헤어져 있어야 한다면 서로가 애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비좁은 공간에 함께 갇혀 있어야 한다면 끊임없이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마찰이 부모에게는 짜증스럽게, 아이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지금도 모든 문명국들의 학교가, 지식의 획득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철저하게 낡은 사고방식에 기초해 있다. 국가는 소년소녀 시민들이 구구단을 외우고 지나간 연도들을 외우게끔 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한다.

그러한 각종 교양을 혈똥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인격의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오늘날에는 인격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여섯 살 이전에 주로 결정된다. 만약 국가가 현대의 아동심리학을 이해했다면 모든 아동이 두 살부터는 보육학교에 다니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아이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안전한 느낌을 제공하는 한 명의 성인과 여러 아이들로 구성된 환경을 발견할 것이다. 소음과 동작에 대한 금지 따위는 없을 것이다. 든든하게 예방하여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주의 깊게 조성된 환경 덕분에, 허락되지 않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아이가 귀가하는 저녁이면 부모도 아이가 반갑고 아이도 부모가 반가울 것이니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아무리 애정이 넘치는 아내도 남편이 일하기 위해 낮 동안 나가 있으면 좋아한다.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말하자면 어머니들도 결코 아내들 못지않다.

- ① 사람의 인격은 유아기 때 거의 완성된다.
- ② 학교 교육은 필요하며 인격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주의 깊게 조성된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 ④ 현대의 도시화된 가정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 ⑤ 올바른 학교 교육의 목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인격을 함양하는 데 있다.

19. 다음 논증의 결론을 추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숨은 전제는?

“셋별은 개밥바라기와 같다”는 동일성 문장은 대상들 간의 동일성을 표현한 문장으로 간주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셋별”과 “개밥바라기”와 같은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일 수 없다. 만약 “셋별”이라는 고유명사의 의미가 그것이 지칭하는 금성이라는 행성이라면, 그리고 “개밥바라기”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도 역시 그것이 지칭하는 금성이라는 행성이라면, “셋별은 개밥바라기와 같다”는 동일성 문장은 “금성이 자기 자신과 같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 사소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라는 밀(J. S. Mill)의 생각은 포기되어야 한다.

- ①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고유명사가 아닐 수 있다.
- ② “셋별은 개밥바라기와 같다”는 문장은 동일성 문장이 아니다.
- ③ “셋별은 개밥바라기와 같다”는 문장은 사소한 문장이 아니다.
- ④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고유명사이기 하지만, 일반적인 고유명사와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갖는 특별한 고유명사이다.
- ⑤ “셋별”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인 금성이지만, “개밥바라기”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인 금성일 수 없다.

20. 보기 중 지문으로부터 유추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간만이 도덕원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인간이 타종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도덕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은 단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뿐이다. 인간들 사이에서만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낮다거나 못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기]

- (ㄱ) 침팬지는 도덕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침팬지가 인간보다는 열등하다.
- (ㄴ)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반면 진드기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침팬지가 진드기보다는 우월하다.
- (ㄷ)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이 치타의 송곳니와 발톱보다 길고 강하므로 사자가 치타보다 우월하다.
- (ㄹ) 인간은 직립보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할 수 없는 진드기보다 우월하다.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1. 다음의 제시문에서 린 교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부의 사람들은 사회, 경제, 역사적 요인들을 고려하면 지능과 신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래 보기 가운데 린 교수의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선택지는 참이라고 가정한다.)

영국 얼스터대 명예교수인 리처드 린은 학술지 '인텔리전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인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자신을 무신론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린 교수는 20세기 137개 선진국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감소세는 평균적인 지능의 상승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과거 남성의 IQ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5점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린 교수는 대학 교수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신을 믿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영국 왕립원 학자들은 단지 3.3%만이 신을 믿는 데 비해 보통 영국인들은 68.5%가 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 교수는 지적했다.

1990년대 실시된 또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국립과학원 학자들 중 단 7%만이 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 교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 중 대다수가 신을 믿지만, 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가고,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린 교수의 연구가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요인들의 복잡한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매우 단순화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 ① 과거는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 ② 고중세 시기에는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을 믿었다.
- ③ 고연령에 이르러 지능이 떨어진 후에 다시 신을 믿게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 ④ 특정 나라에서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커가면서 점점 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 ⑤ 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이들은 현세를 즐기기 위해 강한 도덕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

22. 보기 중 제시문의 판결내용과 양립 가능하지 않거나 제시문의 판결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미국 테네시에 거주하던 쉰(Mary Sue)은 6년 동안 자궁외임신으로 5차례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중 나팔관 파열로 인한 출혈로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던 그녀는 남편 데이비스(Junior Lewis Davis)와 상의 끝에 시험관 아이를 갖기로 결정한다. 1988년 12월 쉰의 아홉 난자가 데이비스의 정자에 의하여 수정되어 그 중 두 수정란은 쉰의 자궁에 주입되었으며 나머지 일곱 난자는 수정 이틀 후 동결 보관된다. 하지만 자궁에 주입된 두 수정란 모두 착상에 실패하자 위태로웠던 그들의 결혼생활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 이혼 후에도 쉰은 자식을 가지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동결 보관 중인 일곱 수정란을 폐기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반면 데이비스는 그 일곱 수정란이 사용될 경우 자신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그 일곱 수정란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법원에 판결을 요청한다. 전례가 없었던 잔여배아 처리 문제를 놓고 1989년 9월 영(W. Dale Young) 판사는 한 유전학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인간은 인간이다. 수정란에 수족, 신경계 등을 포함하여 인간(M을 구성하고 있는)의 모든 구성요건이 명백히 그리고 분명하게 구현된다. DNA조작 검사를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개체의 각기 고유의 영역에 대한 생명정보를 볼 수 있다”고 결론짓고, 배아들은 소유물이 아닌 아이들이라고, 즉 배아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이며 여러모로 그 일곱 수정란을 가장 위하는 길은 자궁에 주입 가능하도록 시험관 안에 보관하는 것이라 판결한다.

<보기>

- (ㄱ) 수족, 신경계 등이 생기는 시점 이후부터 무고한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인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
- (ㄴ) 눈 또는 손가락을 만드는 등 점점 복잡하게 되는 매 단계는 바로 이전 단계의 세포와 분자의 패턴에 의존하게 된다.
- (ㄷ) 인간의 배아는 쥐의 배아와 매우 유사하며 특히 초기 단계의 인간 배아와 초기 단계의 쥐 배아 사이에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 (ㄹ) 뇌의 기능이 아닌 심장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소실되는 시점이 사망시점이라면, 뇌의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소실되었으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있는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ㄹ) 어떤 존재에 23쌍의 인간 고유의 염색체가 출현했다면 그 존재는 인간의 DNA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존재가 인간의 DNA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존재에게 인간의 모든 구성요건이 구현되어 있다. 인간의 수정란에 23쌍의 인간 고유의 염색체가 출현한다.

- ① ㄱ, ㄹ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ㄹ, ㄹ

23. 다음 중 타당한 논증은?

- ① 영심철강이 상하이 푸둥금융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고층건물을 5억 달러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으로 받은 100달러 지폐 5,000,000장 중 무작위로 4,999,990장을 확인해 본 결과 위조지폐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10장도 위조지폐가 아니다.
- ② 항우울제 ‘푸로작’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중 어떤 환자도 양극성장애 치료제 ‘심비엑스’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다. 비정형 항정신병약 ‘자이프렉사’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환자도 ‘심비엑스’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다. 따라서 ‘자이프렉사’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중 어떤 환자도 ‘푸로작’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다.
- ③ 편안한 임종을 맞길 원하는 말기환자에게 자살기계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 말기환자의 경우 치료를 중지해야 한다. 따라서 편안한 임종을 맞길 원하는 말기환자에게 자살기계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 말기환자의 경우라도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 ④ 양극성장애 치료제 ‘심비엑스’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항우울제 ‘푸로작’으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양극성장애 치료제 ‘심비엑스’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비정형 항정신병약 ‘자이프렉사’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항우울제 ‘푸로작’으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비정형 항정신병약 ‘자이프렉사’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 ⑤ 편안한 임종을 맞길 원하는 말기환자에게 자살기계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폐렴을 앓고 있는 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과 말기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말기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말기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편안한 임종을 맞길 원하는 말기환자에게 자살기계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말기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24. <보기>의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아르헨티나는 4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진술이 반드시 참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아르헨티나가 4강에 오른다면, 브라질이 4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브라질이 4강에 오를 것이다.
 (ㄴ) 한국이 그리스를 이기고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긴다면, 아르헨티나는 4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그리스를 이길 것이다.
 (ㄷ) 한국이 그리스를 이긴다면 브라질은 4강에 오르지 못할 것이며,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긴다면 아르헨티나는 4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그리스를 이기거나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길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25. <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할 때,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들 중 확인할 수 있는 원리들을 모두 고르면?

<가>

굶고 있던 개에게 무조건적인 자극이 되는 먹이를 주면 개는 무조건 침을 흘린다. 반면에 먹이가 아닌 조건적인 자극인 종소리를 듣고는 개는 침을 흘리지 않는다.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30초간 들려주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 그러나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나중에는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듣고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험 과정에서 종을 울리고 먹이를 계속 주다가 갑자기 종을 울리고 먹이가 없는 빈 접시를 주게 되면 개는 몇 번 같은 경험을 한 끝에 빈 접시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종소리와 함께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초기 몇 번은 불규칙하게 침을 흘리거나 흘리지 않는 행동을 하던 개는 실험이 반복될수록 점차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을 울리고 나서 때로는 먹이가 나오고 때로는 안 나오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실험이 진행된다면 개는 어떻게 될까? 개는 종소리와 음식 그리고 종소리와 빈 접시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종소리가 때로는 이것을 의미하다가 때로는 다른 것을 의미하면 개는 서서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며 조건화는 실패하는 것이다.

<나>

조건 반응설은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개를 대상으로 하여 소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론이다. 조건반응 이론의 요지는 처음에는 중립적이던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결부되어 나중에는 무조건 자극의 제공 없이 조건 자극만으로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응 조건화 실험을 통하여 다음 원리들을 정립할 수 있다.

- (a) 시간의 원리 : 조건 형성의 과정에서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의 제시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b) 강도의 원리 : 무조건 자극에서는 처음에 제시되는 자극물의 강도에 비하여 나중에 제공되는 자극물의 강도가 더 강하거나 최소한 동일하여야 한다.
- (c) 일관성의 원리 : 조건 자극은 항상 일관된 자극물과 자극 내용을 사용해야 한다.
- (d) 반복성의 원리 : 자극과 반응의 결합관계에서는 자극이 반복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조건화가 잘 성립한다.
- (e) 동시성의 원리 :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동시 활용을 통해 조건화가 성립된 경우 두 자극을 동시 변화시킬 때에만 초기 조건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 ① (a) (b) (c)
- ② (b) (c) (d)
- ③ (c) (d) (e)
- ④ (a) (c) (d)
- ⑤ (a) (c) (e)